

양안(兩岸)관계의 쟁점과 전망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중국과 대만은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협의 양쪽 편이라는 뜻으로 양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학자들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양안관계(Cross-Strait relations)라는 말은 중국과 대만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가 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현재 양안관계의 쟁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대만해협은 우리나라 중동 석유 수입의 70~80%가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만 지원 확대로 미중 갈등에서 가장 폭발력이 크며, 중국은 북한에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력국이므로 한국은 필연적으로 얽혀 있게 돼 있습니다.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해야 합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중화민국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해 중국의 정통성을 대만이 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중앙 정부였던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벌인 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정부는 대만으로 천도했고, 중국 대륙은 내전에서 승리한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내전의 결과이므로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당 역시 처음에는 중국 본토 수복의지를 다졌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대만에서의 발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장제스를 이어 중화민국 대만의 총통에 오른 장징궈(蔣經國)는 대만의 경제 발전을 적극 추동하면서 국민당 이외의 정당 설립을 허가합니다. 1986년 대만에는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民進黨)이라는 야당이 탄생합니다. 민주진보당의 당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정당은 대만이 독립된 실체이며 대만과 중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임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만 독립 성향이 이 당을 유지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부리를 중국 본토에 두고 있는 국민당과 대만 독자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진당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만의 집권당은 차이잉원(蔡英文)이 이끄는 민진당이므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고, 군사 충돌 우려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대만과 대만을 중국의 틀 안에 가둬 두려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경쟁으로 양안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양안관계를 살펴보기 앞서,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산중국이라는 의미로 중공이라 불렀고, 대만의 중화민국을 자유 중국이라 불렀습니다. 1992년 8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중화민국이라는 법통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던 대만은 중국의 국제사회 진출로 1971년 중국에게 법통지위를 빼앗기고 UN에서 탈퇴합니다.

대만의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지만 이 공식 국호를 인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13개국뿐입니다. 중국이 국제 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대만의 국제 공간은 점점 약해졌고 공식 국호를 사용 못하게 되면서 현재는 국제기구나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물론 대만은 'Chinese'를 중국이라 하지 않고, 중화(中華)라 칭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대북(臺北)이라고 쓰지만, 대만에서는 중화 대북이라 표현합니다

국제무역기구(WTO)의 경우 대만은 경제권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 개념으로 국제기구에 참여가 어려우니 진먼(金門), 마주(馬祖), 펑후(澎湖)와 대만섬으로 분류된 경제체로 국제무역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중국 대북(Taipei China)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Taipei China' 명칭은 중국과 대만이 지금처럼 극렬하게 대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Chinese Taipei’보다는 ‘Taipei’가 먼저 나오길 희망하면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홍콩의 영문 명칭인 홍콩 차이나 (Hong Kong China)가 있습니다.

대만의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 정도 되며, 인구는 2천 400만 정도입니다. 작은 섬에 적은 인구지만 사실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대만이라는 지역이 유럽에 있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면적과 인구 수를 가진 국가일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력도 세계 18위 권이며, 실제로 대만의 올해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대만의 공용어는 중국어이지만 중국과 차별을 두고 대만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이 쓰는 ‘보통화(普通話)’라는 용어 대신 국어(國語)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대만 지역의 언어는 민난(閩南)어통으로 통역이 없으면 표준어와 소통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당 정부는 중국의 정통성 강조 차원에서 민난 사투리의 사용을 지양하였었지만 민주진보당 출신의 총통이 당선 되고, 본토에서 넘어 온 국민당 세력이 약화되자 자연스럽게 관공서나 학교에서도 소위 민난어에 바탕한 대만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만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한국 옆에 일본과 오키나와 열도가 쪽 이어져 있고 대만이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라는 지역이 중국에게 지배당하면 오키나와 열도 옆으로 전부 중국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본, 태평양 건너편의 미국의 동아시아 작전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사고를 저질러도 중국이 버리기 어려운 것처럼, 대만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대만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은 대만과 중국, 대만과 미국, 일본·한국·동남아 등 지리적으로는 동서문화의 교류센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보다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만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TSMC라는 세계적인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부상하며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대만 스스로도 “미국의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을 할 정도로 반도체를 호국의 신(護國神)으로 여깁니다.

실제 대만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 때문입니다. 2003년까지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일인당 GDP가 높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성장이 저조했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작년 경제성장률 6%를 달성했고 올해도 상당한 선전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한 대만도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칩니다. 올해 대외수출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대대만 교역액도 47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아프리카 전 대륙 국가와 호주와의 교역을 합친 것보다도 많으며, 그 중 40% 정도는 반도체 교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중국도 중요하지만, 대만 역시 무역은 물론이고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시가총액이 삼성보다 커진 TSMC는 대만의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만의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TSMC는 파운드리 반도체의 50%를 생산할 뿐 아니라 주문자 생산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70%를 대만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텍사스에서 공부한 대만 출신의 학자가 대만에 돌아와 세운 기업입니다. 1987년 대만의 실리콘 밸리인 신주(新竹)공업단지에 기업을 설립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파운드리 최강자 TSMC 외에 대만에는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이폰 전체 물량을 90% 이상을 제조합니다. 애플의 제조사이기 때문에 삼성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기술과 경제력이 우리보다 앞서는 미국과 일본 기업에게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우리나라 기업에게 협력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만은 파운드리 공정과 미디어 탭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디자인 기업도 있어 일괄 공정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나 협력의 공간 창출도 가능합니다.

양안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역사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대만 섬에 거주해온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아 계통의 민족입니다. 이후 유럽 제국주의의 확장 시대인 1624년부터 1662년까지 대만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후 청나라에 정복당한 명나라의 패장 정성공(鄭成功)이 대만으로 망명해 21년간 대만을 통치하면서 한족의 문화를 이식했

고, 이후에는 212년 간 청나라 통치를 받습니다. 당시 청나라 통치는 대만에 주둔 대신을 파견하는 간접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대만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일본에게 대만을 할양하면서 50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통치에 대한 저항이 컸던 것과 달리, 대만은 일본 통치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중국 본토에서는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1912년 중화민국이 건국됩니다. 1921년에는 중국공산당이 창립되고, 공산당은 28년에 걸친 지하투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인 국공(國共) 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고, 패배한 중화민국 국민당은 1949년 12월 7일 대만으로 넘어와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1987년까지 계엄령 해제까지 강압 통치를 지속합니다.

대만 내에서 본토 출신의 지배 세력과 대만 출신들의 갈등도 뿌리가 깊습니다. 중화민국 국민당은 1945년 일본 패망 후 대만을 접수합니다. 중화민국 국민당이 대만을 접수하면서부터 사실 대만인들과 본토에서 온 국민당 간의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만 원주민의 상당수는 명나라 시절 정성공과 함께 넘어온 한족의 후손들이며 자신들을 본성인(本省人)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1945년 이후, 특히 1949년 국민당과 함께 대만에 넘어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외성인(外省人)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외성인들은 전후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성인들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면서 대만 본성인의 민주화를 탄압한 2.28 사건이 발생합니다. 1947년 발생한 2.28사건은 국민당에 대한 반정부 봉기에 국민당이 비무장 반정부 시민들을 학살하고 지식인 600 여명을 생매장한 대만 현대사 최대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거쳐 본토에서 공산당에게 패한 국민당이 대만에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건설하고 대만 본성인들을 압박하는 체제가 바로 대만 내부 갈등의 시작입니다.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도 대만을 통일하려 하였으나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개입을 결정했고, 중국의 대만 통일을 견제하는 미국은 1954년 3월 3일 상호원조동맹을 체결합니다. 이때부터 대만은 미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겪으면서 대만인들은 이전까지는 거의 버려진 땅이었던 대만이 갑자기 외부인들이 와서 중화민국의 임시 정부라고 하니 적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식민지 경험이 많은 대만은 대만인들에게는 '대만의식'이라는 것이 형성돼 있습니다.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만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을 온건하게 통치했습니다.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적 예로 대만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국민당 소속 총통이었지만 대만 독립 성향을 갖고 있었던 리덩후(李登輝) 총통은 신사 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1945년 대만이 광복되고 1949년 국민당이 넘어왔지만 대만 본성인들에게는 국민당도 외부에서 온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 의식은 국민당을 반대하는 대만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대만의식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국민당의 공식 명칭은 중국국민당, 영어로는 Kuomintang of China로 그 뿌리가 중국 본토에 있던 정당입니다. 대만 의식이 강한 대만인들이 근본적인 반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민주진보당은 대만과 중국은 별개라면서 대만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합니다. 민주진보당의 '대만 전도(前途) 결의문'은 대만공화국 수립이 당의 목표라고 천명합니다. 즉, 독립된 대만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만에 정착한 중화민국의 정치 체제는 입헌민주공화제입니다.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은 연임이 가능하며, 총리급의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검찰원의 오권 분립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과 검찰원은 중화민국만의 독자적인 체제로, 과거의 매관매직같은 부패를 제도적으로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시험과 검찰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당이 대만에 뿌리 내린 지 70년이 넘는 시점이며, 중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상당히 퇴색되었습니다. 대만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선거연구센터가 조사한 2022년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63~4%가 스스로를 중국과는 독립적인 대만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자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합치면 70% 이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대만 의식이 발현되었고, 이를 강조하는 정당이 민진당입니다.

하지만 독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현상 유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중국을 벗어나고 싶지만 중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대만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만은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에 대한 자국민 여행을 금지시켰지만 교역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당은 경제적 종속이 결국 정치적 종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경계하면서 독립 성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당은 중국과 각을 세워서 유리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대만과 단교하게 됩니다. 중국과 수교한 미국도 이에 대응하여 1979년 4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 Act)을 만들었습니다. 대만관계법의 핵심은 미국과 대만이 외교 교류를 계속하며, 대만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입할 수 있으며, 대만 보호를 위해 무기를 팔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대만관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에게 37년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중국을 자극하면서 대만에 기존 무기와는 다른 첨단 무기를 수출합니다.

민주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 압박에 시달리는데 미국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니 이야 말로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더욱 친미, 친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만은 중국과의 거리 두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와 교역을 강화하는 남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만 문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중국의 공산당 정부, 독립 성향을 강조하는 현재의 집권 민진당 정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통해 경제 발전과 국제 고립을 탈피하려는 국민당 세력 그리고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양안 간에는 통일과 독립을 둘러싸고 해결이 어려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통일 방안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한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비록 과거 국민당은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면서 그 안에서 대만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면 민주진보당은 이 프레임 자체를 거부합니다. 또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독립에 준하는 행위 예를 헌법 개정을 하거나 대만 공화국을 국호로 쓸 경우, 그리고 대만 문제에 외세, 즉 미국이 개입하거나 통일 협상을 계속 지연시키면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이후에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더해 대만 섬 내에 외국군이 배치되는 경우, 대만이 핵무기 연구 또는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 섬 내에 동란이 발생하는 경우(동란의 규정은 정의되지 않음)까지 무력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1982년 대만에게 보낸 비밀 서신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지원한다는 6개월 보장을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한술 더 떠서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재결합합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중 간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미중 관계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며, 양안 간의 일반적 현상 변화에는 반대하는 것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중국과 대만의 상황에 변경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것으로 미중 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만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으로 미국을 견제합니다. 원래는 중국이 제1열도 안으로 미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제2열도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전략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를 외치면서 제1열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중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요녕함, 산동함, 복건함이라는 세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는 양안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 역시 1992년 중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센카쿠 열도에서 대치하고 있음에도 활발한 교류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너무 중국 눈치를 보거나 대만의 중요성을 간과할 필요는 없습

니다.

만약 양안에 군사적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개입하게 되며 일본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만의 안전을 보장한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일본의 8개 주일미군 기지와 한국의 평택 기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배치가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은 양안 무력 충돌을 보고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춘 북한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소홀한 틈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절대 국외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안관계에 얽힌 주변국의 복잡한 상황을 늘 주시해야 합니다. 시진핑은 과거 지도자들과 달리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일 촉진을 주장합니다. 한편, 미국은 대만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은 중국을 경계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일본이 미국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했고, 중국은 한국의 대 미국 경사에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심리전이나 여론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수 있냐 없느냐가 미래 한중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양안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성이 있는 정책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 소개 **강 준 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한중사회과학회 명예회장, 국회 의원외교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해군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상하이 사회과학원 명예교수

학력

한국외대 중국어과, 대만정치대 동아연구소 석사. 박사, 현대중국정치경제학 전공